

김의겸, 결국 '투기' 프레임에 발목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에 靑대변인 사퇴...출마선언 46일 만에 불출마

검증위서 법적 부분 소명됐음에도 '정무적 판단'에 불출마 압력 받아



당으로부터 '불출마' 권고를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4·15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지 46일만이다. 그를 청와대 대변인에서 끌어내렸던 부동산 투기 논란이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고액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 매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일 뿐,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을 그만뒀다.

본인으로서 억울하다고 해도 '전쟁' 수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투기 의혹을,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 받고 있는 상황이 정권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용히 지내던 그는 지난해 12월 1일 논란이 된 흑석동 상가주택을 팔아 매각 차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향인

전북 군산 출마설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던 시기였던 탓에 '과거'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김 전 대변인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유용한 곳에 쓰임새가 있길 바란다"며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달 5일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한 그는, 10일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내며 총선 출마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군산시장 브리핑에 선 그는 총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고향 분들이 너그럽게 품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군산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들어갔다. 출마선언 이후인 지난달 말 민주당은 복당을 허용했다.

그의 총선 준비는 당 검증위에서 멈춰섰다. 후보자의 법적 결합 여부를 심사하는 당 검증위는 지

난달 14일 예비심사에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동산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일주일여 후인 20일에 또 심사를 받았지만 적격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검증위는 그를 현장조사 소위에 회부했다.

이와 때를 맞춰 당 안팎에서 김 전 대변인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선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그가 출마할 경우 총선 프레임 경쟁에서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지난달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를 비롯한 일부 논란의 후보들을 향해 "용기 있게 정리하고 당에 누를 덜 끼치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불출마 결단을 권하기도 했다.

이어진 지난달 28일 검증위 회의에서도 재차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계속심사 결정이 세차례나 나온 것. 당에선 김 전 대변인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기 위해 세차례나 결정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윤후(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처리 예정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윤호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자유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세부일정과 관련 쟁점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면서 조만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중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를 통해 주요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5인), 한국당(5인), 비교섭단체(1인)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윤호덕 민주당 간사는 "민생법안 처리를 중점으로 먼저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성과를 각 정당에 공유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24개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 간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하는 선거운동은 각 당이 협의해 자제하자고 제안했다"며 "지난 2015년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됐듯이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에서 검역법 관련해서 말했는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예방이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발의한 사후처리 중점 법안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법안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이번 사태 종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양정철 "임종석에 호남 선대위원장 요청"



양정철 민주당 구원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호남 지역 선거를 총지휘하는 선거대책

위원장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양 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따로 요청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호남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출마나 불출마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수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잘 대응하고 난 다음에 당 요청을 지혜롭게 잘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원장은 "(임 전 실장이) 당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겠죠"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곧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이 참여하는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 국민불안 덜어드리자" vs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與 "정부대응 적절... 방역강화, 경기침체 최소화 2월국회 목표" 野 "우한發 입국금지 무용...전면 입국금지로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환자 조기발견 체계 강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으로 평가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일심동체가 돼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광, 숙박, 외식업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1순위 '방역', 2순위 '경제', 3순위 '선거'로 우리 모두가 임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협력해 초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사태의 조기종료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특위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미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에 191조원 규모의 실질경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된 바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지금경제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